

<2023년 9월 24일 주일말씀>

내게 배우고, 증거하라!

본 문 :

<누가복음 16:19-31>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찌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찌라고 권함으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3:11>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성령이시요, 주 예수님이십니다.

I. 서 론

◆ 선생이 어떤 환경에 처해, 힘든 것이 극치에 달했을 때도 예수님이 늘 ‘말씀’ 해 주시어 그 말씀 듣고 행함으로써 영원한 사망을 헤치고 나와 생명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이시고, ‘예수님’ , ‘성령님’ 이십니다.

◇ 선생 역시 누구를 만나면, 같이 먹고 놀기보다 평생 염두에 두고 행할 ‘말씀’ 을 줍니다.
그것이 평생 자기를 살립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지키면 자기 육도 영원한 성공을 위해 살게 하고, 영도 영원히 살리고, 또 시대를 잡게 하셨습니다.

◇ 그러므로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선생을 통해 이 시대 말씀을 해 주신 것,

그것을 잊고 행치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도와 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이같이 하면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같이 도와줍니다.

II. 본 론

<본론 1> - 행하는 만큼 달라진다

몸부림이 크게 있어야 크게 얻는다

◆ 사람이 몸부림 없이는, 얻을 대가를 얻지를 못합니다.

몸 안의 하찮은 가래만 속 시원히 빼내려고 해도
입 안에 손가락 두 개를 넣고 혀바닥을 누르고
목구멍을 건드리면서 진절머리를 치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뭉친 가래가 속 시원히 나옵니다.

이같이 모든 것들도 해결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몸부림이 크게 있어야 크게 얻습니다.

◇ 가령,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깨끗한 물 한 컵을 넣어야

더러운 물 한 컵이 넘쳐 나옵니다.

그 후 깨끗한 물로 뒤바뀝니다.

이같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 이 세상은 육의 세계입니다.

육이 하는 만큼, 얻고 이루어집니다.

안 하면, 누가 해 주기 전에는 세월이 가도 고생만 하고
평생 그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면, 지금 즉시 되어서 문제없이 살고

안 하면, 평생 그것으로 인해 그냥 고생하면서 삽니다.

◇ 예를 들어, 옛날 초가집이 있으면

손대고 고치는 만큼 좋아져 편히 삽니다.

그냥 두면 평생 그대로 있어,

그것으로 인해 고생하면서 괴롭게 살아가고

결국 집이 낡아서 무너져, 죽을 것입니다.

자기 몸도 행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변화’를 주는 핵입니다.

◇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만드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자기 구원 먼저 해 놓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한 대로 만들 것이냐.’

어느 쪽이냐가 중합니다.

자기를 사망에서 끌어내어 생명권에 갖다 놓고 만들어야지,

사망권에서 만들면서 집을 지으면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 됩니다.

고로,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아 놓고, 생명의 세계로 옮겨 놓고

하나님, 성령, 주의 뜻대로 자기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신앙의 집도 짓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사망권에 뺏기지 않습니다.

〈본론 2〉 - 저마다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아가느냐가 문제다

◆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선생이 10대 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사는 것만 생명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구원 역사를 이루고 왔습니다.

의에 신경 쓰고 사느라, 먹고 사는 것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주와 같이 살면서 다 해결했습니다.

◇ 저마다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자기 때를 놓치면 끝장나니, 환난 때도 해야 합니다.

육신 일생과 영 영원히, 사랑과 이상의 세계에서 살려면

전능자 하나님과 그가 구원하려 보낸 자를 절대 믿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앞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앞에 보통으로 살지 말고
기뻐하며, 최고로 충성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로 육도 잘되고, 영도 잘되어
기간도 없이 영원토록 잘됩니다.

- ◇ 하나님은 선생도 삶 속에서 피골상접하게 살게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행케 한 후에
육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 영의 세계는
육에 속해 사는 자들은 정말 모릅니다. 가 본 자가 압니다.
선생은 지옥을 보고 와서 남의 일도 안 하고
오직 천국 가기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본론 3> - 영계는 세상에서 제 좋아하며 산 차원대로 가서 모여 산다

- ◆ 선생은 어젯밤에 기도 시간인데도 피곤하니
‘먼저 자고, 기도는 새벽에 하겠다.’ 하고 초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편했습니다. 육은 편했는데,
이때 내 혼은 혼계에서 낮은 지역을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편한 보통 길이었는데, 갈수록 험한 길이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낮은 세계였습니다.
거기에 우측 길이 있는데, 좀 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지 않고, 좌측 길로 가게 됐습니다.
높은 산으로 넓은 길이 나 있어서
많은 자들이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산 능선에 오르니

우측에는 큰 궁궐, 옛날 한옥같이 지은 집이 보였습니다.
대문이 너무 컸습니다.
기와집이었는데 수백 년 된 집이고, 썩어 퇴락한 집이었습니다.
높은 자 몇 명이 거기서 돌아다녔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부자로 누리고 살던 자들인데
영계에서 귀신으로 살면서, 갖은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능선 따라 올라가니, 큰 성이 쌓아져 있었고
관광하는 모든 자들이 희망을 갖고
어두운 길로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섭리사에서 보던 낮익은 자들도 거기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앞의 성은 멀리서 볼 때, 희망적인 곳으로 보였습니다.
선생도 같이 따라가 봤습니다.
가까이 가 보니, 멀리서 보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퇴락한 성이 무너지고 있었고, 폐허의 산성이었습니다.
모두 희망으로 왔다가 허무해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것을 보면서
모두 희망으로 정처 없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 보낸 자를 실망시키고 산 자들은
자기도 가는 곳마다 희망으로 가지만
모두 실망하게 되고, 기대에 어긋나서 낙심도 하게 됩니다.

혼계의 그들은 멀리 있는 또 한 곳을 향해
희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주를 실망시킨 자들이

지상영계에 가서 행위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자를 믿지 못하여
 육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그 영들이 사는 지상영계였습니다.
 세상에서 희망 없이 관광이나 다니고
 육만 위해 각종 것을 누리며 살다 죽은 자들,
 그 영들이 역시 지상영계를 정처 없이 관광 다니고 있었습니다.
 옷들도 아주 더럽고, 얼굴들도 어두웠습니다.
 각 나라, 각지에서 와서 구경 다니는 자들이라
 서로 모르고 재미없이 다녔습니다.
 ‘행여 저 산성에 가면 아주 큰 기쁨 거리가 있겠지.’ 하고
 기대 걸고 가 보면, 모두 퇴락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실망하면서 오고 갔습니다.
 이곳은 지상영계이며, 어두운 음부 쪽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때 세상에서 본 듯한, 알쏭달쏭하게 아는 자도
 가끔 지나갔습니다.
 섭리사에 있다가 제 갈 길로 간다고 나간 자들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원시인 지역 같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원시인들, 혹은
 전능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 이와 같이 영계는

세상에서 제 좋아하며 산 차원대로 모두 가서 모여 삽니다.
 고로, 세계인들이 각자 살던 행위대로 자기 영이 형성되어
 그 해당되는 영계에 가서 속해 삽니다.

그래서 영계에 가면

온 세계 사람들이 세상에서 산 행위에 따라 모여 살고 있습니다.

선생이 간 지상영계도 보면

세계인들이 모여들어, 각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가면

전국 각 지역에서 모여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들이 서로 잘 모르고 다녔습니다.

가까이 보니, 아는 자들끼리 대화는 하고 다녔습니다.

◇ 지금까지 본 곳에서

좌측 길로만 길이 나 있어 그쪽으로 더 가니,

큰 건물 같기도 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역시 퇴락한 썩은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본 지역을 다니는 자들보다도
훨씬 더 삶의 고통을 당하며 시달리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먹는 것을 보니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썩어 있는 것을 서로 팔고 사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먹고 다니는데, 거지 중에서도 보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썩은 자들로서 얼굴이 늙고 찌그러져 있었고,

너무 비참하고 참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침침해서 바닥이 잘 안 보이고, 냄새도 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 대화하려 하니, 멍어리 같았습니다.

지상에서 우상이나 섬기고 미신들이나 섬기고 산 자들,

하나님을 찾고 섬기지 않은 자들의 영과 혼들이었습니다.

갈수록 지옥 쪽이라, 갖은 고통을 받는 영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들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 고통을 영원토록 받습니다.

◇ 이때 선생이 ‘내가 지옥 쪽 지상영계에 와 있구나.

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어서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해야지.’ 하고
맘을 먹으니, 점점 내 혼이 내 살던 지역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참을 걸어 빛이 환한 세계로 나오니
평소 보던 지역, 육계의 세상이 보였습니다.
더 한참 걸어 나오니, 평소 살던 육계였습니다.
잠을 깨니 새벽이었습니다.

◇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하니

기도 대신 영계의 비밀을 가르쳐 주어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지상영계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보여 준 것입니다.
육신이 안 하는 대로, 그 세계에 처해 다녔던 것입니다.

역시 삶도 그러합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시대 보낸 자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과 혼이 사망에 처해 삽니다.

믿어도 제대로 안 믿고 자기 중심하고 사는 자들도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산 자들로서
같은 취급을 받고 사망에 처해 삽니다.

육신이 안 죽어도

지금 그 육도, 그 혼과 영도 사망권에 속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 ◇ 이날 새벽까지 지상영계를 다니며
행위대로 살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살아가다 죽어서

그 혼과 영이 거기에 처해 살아가고,

육이 살아 있는 자도

자기 행위대로 받고 비참하게, 참담하게 사니

너무나도 어이없고 불쌍합니다.

모두 내세,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과 구원자를 안 믿고 사니

그 결과로 육도 영도 비참하고 참혹하게 산다는 것을 모릅니다.

너무도 불쌍합니다.

그런데 섭리사에 사는 자도 가치를 모르고 살고,

그러다 작은 일 때문에 섭리사를 나가서

자기 영을 사망권에 살게 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 ◇ 이 세상 지구 세계에서의 육신 일생의 삶은

자기 영이

영원한 지옥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고통 겪으며 사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기쁨으로 사느냐,

그것이 결정되게 합니다.

〈본론 4〉 -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산 것으로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

◆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국과 황금 천국을
오랫동안 만들어 놓고 살고 계십니다.
그냥 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도 지구가 발달하듯이
천인들이 하나님의 구상대로 계속 만들고 창조했습니다.

◇ 천국과 황금 천국은 하나님의 구상대로 창조하시되,
세상에서 믿고 사는 자들의 행위에 따라
영이 변화되고 형성되는 그 공력대로,
하나님이 계속 창조해 가십니다.
선한 세계로, 사랑의 세계로, 빛나는 세계로 구상하시고
예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웅장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천인들을 아들딸같이 생각하고 대하시며
부리는 영들로 삼고 천국의 세계를 이루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아예 쫓아내어
악의 영들의 세계로 가서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 구약에서 하나님을 충성으로 믿고 선하게 산 자들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 선지자들, 사사들,
에스더, 모르드개, 욥 등 구약의 선지 선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산 자들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거지 나사로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고,
 부자 영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며
 “나사로를 보내어 내게 물 한 방울만 달라.” 해도,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안 된다. 건너갈 수가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천벌상 안 된다.”
 했습니다.
 이에 부자 영이 구하기를
 “그럼 세상에 사는 우리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좀 믿게, 말 한마디만 하게 해 달라.”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살라.
 말해 주는 자가 있는데도 안 믿는다.” 했습니다.
 부자 영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죽은 자가 가서 말해 주면 듣고 회개할 것이다.” 하니,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기를
 “지옥에 간 자가 돌아와서 이야기해 주면 믿을 것 같아도,
 말해 줘도 안 믿는다.
 땅에서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믿어야 한다.
 지옥에 한번 가면, 영원히 지상 세계와 교통을 못 한다.
 그 후손 역시 그러하다.
 네 형제나 후손들도 땅에서 안 믿으면,
 또 거기 지옥으로 갈 것이다.” 했습니다.

◇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산 것이
 그리도 크게 운명을 좌우합니다.

영원한 운명을 영원토록 좌우합니다.

모르고 살아가면 점점 흑암에 묻히는 영도 되고, 육도 됩니다.

〈본론 5〉 - 하나님이 보낸 자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존재를 못 한다

◆ 하나님은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이 빛을 안 비추면, 지구는 금방 다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으로 지구를 따뜻하게 해서 생명체를 이루듯이
생명의 세계를 이루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태양과 같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지구는 얼어 버리고, 모든 존재물도 얼어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지구도 하나님 같습니다.

우주에 해, 달, 별이 다 있어도 지구가 없으면

나무 하나, 풀 하나, 벌레 한 마리, 사람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체 돼서 지구와 같습니다.

지구가 없으면 사람과 만물의 생명이 존재를 못 하듯,

하나님이 보낸 자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존재를 못 합니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주도

지구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 제일 큰 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구원하라고 한 자의 말을 믿다 말고
자기의 육적 사고로 인해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악한 영들과 같이 믿지 않고 오히려 불신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자를 악하다 합니다.

마음이 변해서

악한 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자기가 평소 살아온 행위대로 구원한 자를 악하게 말합니다.
자기 의가 없으니, 자기가 악한 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시 18:25-26)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자기 구원하신 자를 악하다 한 자들은 모두

그들이 구원자를 대한 대로, 하나님은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으니, 하나님은 그 보낸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불신한 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 영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사망과 생명의 선, 마지막 최종 지역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생명의 구원자를 놓치면 끝납니다.

고로 구원시키는 자도 최선을 다해 돕고 이끌어 주고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 구원해 줍니다.

그래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서운하게 생각하고,

자기 꿈만 이루려 하고,
자기 만족이나 자기 사랑만 이루려 하고
자기 중심하고 육적으로 살면
구원자의 손에서 벗어나서 사망으로 갑니다.

- ◇ 지옥은 제 좋아서 기뻐하며 가고,
천국은 하나님과 구원자가 좋아서 고생하며 갑니다.
지옥에 한번 가면
사망의 영, 사탄과 사망의 사람들과 하나 되니
마치 점불인 나무같이 그들과 한 몸이 되어
떨어질 수 없어 같이 살아갑니다.
천국에도 한번 가면 영원토록 존재하고,
지옥에도 한번 가면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 ◇ 고로, 누구든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충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뜨거운 물이나 불을 손에 대 보세요.
선생은 시험해 보고 절실히 깨닫고, 모두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더욱 몸부림쳐 생명들을 구원했습니다.

〈본론 6〉 - 이상세계 기업을 절대 뺏기지 말아라
더 충성하여라. 더 사랑의 공력을 쏟아라

- ◆ 구원에 실패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껏 산 것이
다 실패한 것입니다.

구원 못 받고 살다 죽은 자는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반면에, 구원받고 천 년의 사랑을 약속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구원자를 믿고
충성으로 사는 자는
결단코 영원토록 성공하고 사는 자입니다.

- ◇ 그러므로 어떤 말에도 유혹받지 말고, 절대 신앙의 영웅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어 성령의 감동 안에 살면서
하나님 위신의 권세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선생도 “잘했다.” 하고,
더 차원 높은 영과 육의 위치에 살게 해 줍니다.
절대 전능자의 권위를 세워 주고
구원자와 성령을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자는
영혼이 영원히 잘되는 축복도 받지만,
육신이 땅에 살 때 각종으로 합당하게 축복해 주시어 받습니다.
지금까지 뛰고 달린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줄 것을 다 주십니다.

- ◇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영의 사랑의 이상세계 기업을 받은 너희는
이제 절대 뺏기지 말아라.
더 충성하여라. 더 사랑의 공력을 쌓아라.
이제 섬리사도 한 차원 높이어서 한다.

나 예수가 지금껏 약한 자와 아픈 자들 쫓아다니면서
내 육의 사명자를 쓰고 해 줬는데,
이제는 너희 모두가 그런 자들 잡아 주고 기도해 주면
나 예수는 차원 높여 뛰고 달리는 자들,
충성자들 중심해서 한다. 그리 알아라.” 하셨습니다.

◇ 장사하는 자가 각종 물건을 팔아
조금씩 이익을 남겨 모으면 큰돈을 만들듯이
우리도 ‘각종 의를 행한 것’ 을 모으면 많아집니다.

전도, 관리, 증거, 설교, 감사, 사랑, 화평, 은혜 생활 등입니다.
힘들어 다 죽어 가는 생명들을 다시 살려 주는 일,
많은 생명들을 인터넷으로 모아 회원 만들어서 크게 행하여
그 회원들을 월명동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과 신화의 주인공을 이야기해 주고 구원시켜 주는 일,
각종 행정을 보고, 부서를 지도해 주는 일,
시험에 든 자들의 꺾는 말로 인해 사망에 묶인 자들이 없는지
찾아서 풀어 주는 일 등
주를 위해 전심으로 행하는 의들입니다.
이것이 모두 육과 영에게 의가 되어,
자기 영도 육도 빛이 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조건이 됩니다.

<본론 7> - 주를 불신하는 자는 알곡 없는 쪽정이다

- 참곡식같이 참생명이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고 알아라

◆ 구원을 제대로 모르는 자, 그 의가 없으면
환난의 바람에 날아갑니다.
알곡 없는 쪽정이같이 날아갑니다.
알곡들만 공간에 들어 주인이 먹고 마시듯이,
모두 절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알곡이 되고
주와 일체 되어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황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 ‘알곡’ 이 되려면, 자기 안에
예수님과 선생을 알곡으로 두고 일체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를 구원하시니, 그가 알곡입니다.
알곡이 없으면, 쪽정이입니다.
쪽정이가 되면 바람에 날아갑니다.
주를 불신하는 자는 알곡 없는 쪽정이입니다.
고로, 환난 때 날아갑니다.
환난 때는 ‘알곡인가? 쪽정이인가?’ 알아보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이 되면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알아봅니다.
밭의 가라지도, 논외 피도 농사를 지어 보면
가라지(피) 이삭과 곡식 이삭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봅니다.
다만, 속의 알곡이 다릅니다.
가라지는 쪽정이 안에 가라지 씨가 들어 있습니다.
쪽정이를 까 봐야,
알곡인지, 밭의 가라지 씨인지, 논외 피의 씨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볼 때, 사람도 그러합니다.

‘의의 씨, 참사랑의 씨, 알곡인가.’
혹은, ‘악의 씨, 가라지인가.’ 를 압니다.

◇ 성경대로 보면

가룟 유다같이 배신하면,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구원자에 대한 불신과 배신,
이는 시대마다 공통성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구원자를 믿지 않는 죄다.”
하셨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일체 되어야 살아납니다.

◇ 마태복음 13장 27-28절을 보면

왜 가라지가 생겼느냐고 종들이 주인에게 물으니,
“가라지는 원수 사탄이 그 씨를 마음 밭에 뿌려서 생겼다.”
했습니다.

가라지 씨는 마귀와 인(人)사탄이 뿌려서 납니다.

마음에 악한 말, 거짓말을 뿌립니다.

그것을 불신해야, 알곡만이 성장합니다.

참곡식의 씨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자를 통해 뿌리셨습니다.

참곡식같이 참생명이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좋은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 자기 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하나님, 성령, 예수님, 사명자와의 관계성 관리를

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들어 살기 위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위하고 좋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을 낙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 신앙생활을 하여도 보통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영원토록 영이 잘되고, 육도 살아 있는 동안 잘되는데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딴 데로 마음도, 행위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안 하든지, 재미없이 하면

운명이 돌아가서 딴 데로 가게 됩니다.

연구하고, 노력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매일 자기 행함에 따라서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매일 대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시대 신부들을 쓰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II. 결 론

〈결론 1〉 - 사람들은 앞날을 모르고 살아간다

-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좋으냐

◆ 사람들은 앞날을 정말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고를 당하고서야, 고통을 당하면 그제야 압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서야 알고, 화재 사고가 나고서야 알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다 병들어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면, 그제야 후회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하고서야, 잘못된 것을 압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문제가 생긴 것도 해를 당한 후에야 압니다.

거리에서 죽음의 사고들이 나고서야, 그제야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행할 때마다 온전히 행하여라.” 하십니다.

- ◇ 전쟁이나, 무서운 지진이나, 각종 사고나, 홍수나
댐이 터지어 휩쓸고 지나가야, 그때서야 압니다.
총기 사고도, 흉기 사고도 당하고서야
그제야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

- ◇ 성경 역사를 봐도, 현재 모두를 봐도,
믿고 오던 자가 하늘땅을 배신하고 구원자를 불신하고
극한 해를 주고 심판을 받고서야, 그제야 후회합니다.
또 사기를 당하고서야, 그때서야 압니다.
핸드폰 보이스 피싱 사기, 각종 금융 사기입니다.
형제끼리 속이고, 속임을 당한 후에 알고 분통해합니다.
모두 당하고서야 압니다.
육신이 죽고 영이 영원한 지옥 세계로 간 후에야
자기가 악의 영계, 혹은 지옥에 온지를 그제야 압니다.

이 모두는 동일합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그 어떤 자들도 무지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 ◇ 섭리사는 미리 알려 주어
사고도 죽음도 안 당하고, 손해도 안 보고,

더 좋은 일이 생기게 가르쳐서 잘되게 해 주는데도,
그 말씀대로 안 한 자는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 ◇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시대 사명자들에게도
성령으로 감동시켜 알려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 구원하러 보낸 자를 통해 미리 말씀해서
육신도 죽음을 피하게 하고,
영은 영원한 지옥 고통을 받지 않게 사망에서 나오게 하여
영원한 사랑의 황금 천국으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딴 길로 가면, 다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 ◇ 그동안 개인의 죽음과 고통과 사고와 각종의 것을
모두 미리 말해 주어, 살렸습니다.
또 “내 말을 지켜 행해야 된다.” 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 ◇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시대 보낸 구원자를 통해
예전에 약속한 말씀대로, 정녕코 행하셨습니다.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 심판이 와도 안 당합니다.

- ◎ 45년간 섭리 역사를 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리 알려 주시고 심판하신 것과

도우신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결론 2> - 하나님이 그 보낸 자에게 미리 보이고 행하시다

(영상 1)

- ▷ 1994년, 일본 오사카 지부에 순회를 가서
오사카 교회(1994.3.29.)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본 민족을 사랑했는데
일본은 물질로 치우치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
일본 앞날에 큰 화가 있다.” 하고 미리 가르쳐 주면서,
“기도하여라. 곧 닥친다.”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10개월 만에,
고베 시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 사명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행하십니다.
이 지진으로 6,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베의 상징이었던 ‘아쿠라 신사’가 무너졌고,
고베 시의 ‘예수님상’과 섭리 교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 ▷ 1999년 한때, 대만 중부 난토우에 선생이 순간 갔었습니다.
원래는 책 쓰면서 거기에 한 달간 있으려다가
하나님이 “지금 있는 지역에 지진 난다.” 하셔서,
모두에게 말해 주고, 바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떠난 후 바로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선생은 대만 남부의 지진 난 지역에 한 달 이상 머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말세 때 행하신 일을 기록하여
책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때의 지진으로 2,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당과 절들도 무너났습니다.

- ▷ 1999년 8월에 행사차 프랑스로 갈 때,
프랑스 상공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겉은 천국, 속은 지옥이다.
차라리 겉이 지옥, 속은 천국이라면 심판치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그해 연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폭풍이 불어닥쳐
시속 200km의 강풍으로 파리 시내와 근교를 휩쓸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들이 파괴되고 전기가 끊겨
프랑스 인구 6분의 1 이상이 어둠에 갇혔고,
프랑스의 나무 3억 주가 피해를 입었으며,
베르사유 궁의 정원수만 해도 1만 주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유리창 수백 장이 날아가고 지붕이 파손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프랑스로 성탄절 휴가 여행을 온 자들은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고,
프랑스에 와서 2000년 새해를 맞겠다고 모여든
세계 관광객들 2000만 명 이상이 예약한 것을 다 취소했습니다.
이 폭풍과 함께 한파, 폭설, 홍수로 아수라장이 되어

유럽 전체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 ▷ 2001년,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
밀물이 멈춘 표적을 알고 있지요?
그날 선생이 ‘말세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15분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신 표적이다.” 하고 가르쳐 주었는데,
잠시 후 서쪽 하늘에 검은 구름이 짙어지고,
거기에 저녁노을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너무 슬프게 느껴져, 슬픈 일이 일어날 징조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 말씀이 끝났으니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신다. 저쪽이 어느 나라냐?” 하니,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 저녁노을같이 슬픈 일이 일어난다.
기도해 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 순간, 1년여 전 미국의 제자들에게
“네 민족을 위해 기도해라. 민족의 전쟁이
어느 한 날에 일어난다.” 라고 말해 준 것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120층 쌍둥이 빌딩이
테러분자들로 인해 붕괴되어
3,000여 명이나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행하실 일에 대하여
시대 사명자에게 은밀히 알려시고 행하십니다.

- ▷ 2007년, 선생이 중국 옥에 있을 때,

까마귀 10만 마리가 떼 지어 나타나
 3일 동안 내가 갇힌 옥의 주변을 날아다녔습니다.
 중국 앞날에 닥칠 재앙을 깨닫고,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선생이 바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중국에 있던 제자들도 모두 각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모두 떠나고 몇 달 있다가
 2008년도 5월부터 중국에 큰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쓰촨성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10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섭리인 중 어떤 자는 쓰촨성에서 식당 사업을 하다가
 선생 말을 듣고 지진 일어나기 7일 전에 나와서 살았습니다.
 다시 가 보니, 그 지역을 찾지 못할 정도로
 천지개벽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섭리인들 모두 미리 다 나와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영상 1 끝)

◇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보낸 자에게 미리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으셨으니,
 섭리역사 45년간 미리 말해 준 것이 수백 가지나 됩니다.
 모두 본 자들은 기록하여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섭리사 후손들에게도 알려져, 믿고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현재 모든 자들도 이를 증거해 주면,
 모두 “하나님이 여기서 행하신다.” 하고 따라옵니다.

◇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사전에 보이시고
사전에 기도해 주게 하셨습니다.

선생은 모두 보고, 불의한 것과 의를 행한 것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의 말씀대로, 선악 간에 행한 대로 갚아 달라.’ 고
간구했습니다.

(영상 2)

- ▷ 1995년, 광주 비엔날레에 참석하여
학생들과 젊은 자들이 잔인하게 죽음 당한 것을
사진 전시회를 통해 보고, 하나님께 그 사실들을 간구했습니다.
또, 그날 200명 이상이 모두 보고
죽은 자들, 그 영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어, 모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영상 2 끝)

하나님은 그때 해당하는 자, 고(故) 전 대통령을
옥에서 수년간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 ◇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선악 간에 행하십니다.
고로, 하나님께 억울함을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 ◇ 사람은 정말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합당한 자를 통해 말해 줘도
그것을 사람 말로만 압니다.
고로, 사명자를 통해 또 말해 줘도 안 믿습니다.
무지가 죄입니다. 의심이 죄입니다. 죽음입니다.
미리 이야기해 줘어도 믿지 않은 자는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당했고,
믿은 자는 해를 피했습니다.

◇ 심판은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격입니다.

사람들도 모두 청소하는 것이 곧 쓰레기 심판 아닙니까.
육도 영도 깨끗이 회개하고 자기가 청소하듯이 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 전심으로 살아라.

육신의 행위대로 영이 사망으로도 가고, 천국으로도 간다.

이는 절대적인 전능자 하나님의 법이라, 피할 수가 없다.

믿고 행해서, 생명권에 살아라.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소돔 땅의 롯같이 벗어나리라.

섭리사는 약속대로 해 주니, 감사하고 지켜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 이같이 하나님께서 시대를 보고 심판도 하셨지만,
시대 사명자로 인해 평화의 역사로 이끄신 표적들도 많습니다.

〈결론 3〉 -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 주시다

- 시대 사명자를 통해 표적을 보이시다

(영상 3)

▷ 한국이 최고로 걱정하는 것은 ‘남북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1978년 섭리사를 시작하고

“앞으로 40년 이상 전쟁 없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전쟁이 날 것같이 긴박한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 1991년, 처음으로 일본에 선생이 순회 갔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생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일본의 사랑하는 자들아. 열심히 하여라.

너희들 걱정이 무엇이나?” 하셨습니다.

“동경 시내에 지진이 날까 봐, 늘 마음이 두렵습니다.

과거 지진을 생각하면 두려워 잠이 안 옵니다.”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전도하여라.

소원대로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듯,

소원대로 동경에 30년 동안 지진 안 나게 해 주마.” 하셨습니다.

그 후 약속대로 30년 동안 동경에 큰 지진이 안 났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꼭 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3 끝)

◇ 이것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을 믿고 약속받은 자들만 압니다.

고로, 증거해서 다른 자들도 믿게 해야 합니다.

◇ 한때 동경에 지진 난다고 피하라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건하게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진 안 나게 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행하면, 하나님은 의롭게 행해 주십니다.

◎ 하나님이 평화로 이끄신 역사에 대해 계속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4)

▷ 1991년도,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기 10년 전에

선생은 일본에 가서

“너희도 이제 야구보다 축구를 하자.

그리하여 너희 나라에 축구 부흥이 일어나게 하자.” 하고
말해 주고서, 같이 축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1년 6개월 후에

J 리그, 일본 프로 축구 팀이 결성되면서

축구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95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였는데

‘한국과 일본이 사이 좋게 월드컵을 함께 하게 해 달라.’ 고
시대 사명자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하나 되어 하게 해 주신다. 감사하고 축구하여라.” 하니,
일본 제자들은 늘 축구를 했습니다. (영상 4끝)

(영상 5)

▷ 그리하여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이 일본에 축구 하자고 말하고

그대로 1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 표적입니다.

또한, 일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축구 문화를 꽃피우며 전도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일본도 16강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 하고 말한 대로
2002년도 월드컵에서 일본은 16강에 들어갔고,
한국도 4강에 들어갔습니다. (영상 5 끝)

◇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 행해야,
하늘나라까지 기업으로 받아 영원히 누립니다.

(영상 6)

▷ 선생은 그때 폐막식에 참여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였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날 양국 나라 대통령이 왔는데도 폐막식 결승전을 안 하다가
선생이 도착하고 나서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다 찍어 놓았습니다. (영상 6 끝)

◇ 그때 전능자 하나님이 오시고 결승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때 월드컵을 두 나라가 같이 하게 축복해 주셨으니
모시고 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돕고 행하십니다.

◇ 이 월드컵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과 같은, 성약시대 표적이었습니다.

사명자가 시대에 온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신약 때도 예수님이 표적을 남겼습니다.

민족의 표적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다 나오듯
인자도 무덤 속에 3일간 있다가 나온다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월드컵밖에 보일 표적이 없어,

선생은 “이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그 후 한국은 20년이 넘도록 4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행하신 일임을 알고
증거해야 합니다.

시대 사명자를 통해 보인 시대 표적입니다.

◇ 이 같은 시대 표적을 너무나 많이 보여 왔습니다.

(영상 7)

- ▷ 1995년 한국 몽산포에서 수련회를 할 때
모두 화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서해안 밀물이 멈춘 표적.
- ▷ 1999년 프랑스에서 세계평화대회를 개최하여
노스트라다무스가 4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평화로 이룬 표적.
- ▷ 1999년 유럽에 가서 기도하여, 천주교와 개신교를 화해시키고
482년 만에 종교 싸움이 끝나게 한 표적. (영상 7 끝)

◇ 이 외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행해 오시고,

또 시대 보낸 자와 함께 행하시면서 증거하게 하여,
45년간 전해 와서 표적이 더 일어났습니다.
모두 전해야 됩니다.
신약시대 행한 것도 반복해서 2000년 동안 전해 왔습니다.
고로, 모두 듣고 따라와
2000년간 인(人)구름의 역사를 펴 온 것입니다.

<결론 4> - 행한 것으로 옳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 이 시대 표적, 사명자를 통해 행한 모든 것을 증거하여라

- ◆ 보고도 못 믿으면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믿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통해 행하심을 믿게 해야 됩니다.
행한 것으로 옳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 ◇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일어나는 민족과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보아라.
다 어쩍이뇨.

모두 굳건하여라.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여 표적을 보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나 예수와 같이 행하심을 증거하여라.
그것이 증거 자료다.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힘 받고, 능력 받고, 역사를 시인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안다.

어떤 표적을 더 원하느냐.

지난날 보인 것을 생각하고, 믿고 전하면서 행해야 된다.

또한,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증거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이 시대에 행하신 일이고,

나 예수가 구원자와 함께 시대에 행한 일이다.

거울로 삼고 감사해야 한다.

지난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근거로 생각하고,

그와 같이 지금도 돕는다는 것을 알고 확신해야 되느니라.

신약의 표적도 2000년 동안 전하고 증거하며

복음을 전해 오지 않았느냐.

이 시대 표적도 1000년 동안 전하는 것이다.

사명자를 통해 행한 모든 것을 증거하여라.” 하셨습니다.

- ◇ 선생이 책에도 다 못 쓰고,
설교로도 모두 까놓고 말을 못 했습니다.
아는 자들은 전도할 때 증거하여야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더욱 함께하십니다.
뜻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행치 않으시면 할 수도 없습니다.

- ◇ 신약역사를 보세요.
모두 예수님이 행한 것을 써 놓아서,

그것이 성경이 되어

그것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신 것을 자꾸 증거해서
그것을 듣고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길을 찾아다닙니다.

인생길이 곧,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새 역사가 아닙니까.

새 역사를 따라가면, 계속 생명길이 아닙니까.

자기가 자꾸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해 온 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그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 ◇ 그동안 표적 보기를 위해서 행해 주었는데,
표적을 보여 주면 좋아하다 말고 흐지부지 끝냅니까.
귀히 여기고 자꾸 전해 줘야, 모두 듣고 행합니다.
“사람은 말 안 하면 모른다.”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 70일 금식했을 때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 ◇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지난날에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니
성약역사가 계속 진행된다 함입니다.
“너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권에 살게 해 준 것이
각자에게 최고의 표적이니라.” 하셨습니다.

- ◇ 지금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시대입니다.
민족, 세계 모두에게 행하십니다.

깨끗이 못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 주고 행하십니다.
행한 대로 대해 주시니
사랑의 대상이 되어 변치 말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 ◎ 삼위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와 화평이 충만할지어다. 아멘.